

412장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올라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 (4) 이 땅위의 험한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35장 - 크고 놀라운 평화가

- (1)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 (2)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 (3)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 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 (4)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 후렴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옆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7월 11(수) 기도 담당 : 박광식 집사

2018년 7월 10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임종희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412장 다같이
기도	전종우 집사
성경봉독 욥기 40장 1절~9절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성도가 바라는 축복』 임종희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335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욥기 40장 1절 ~ 9절 >

- 1.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2.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 3.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 4.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 5.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6.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7.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 8.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 9.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새문안교회 2018. 07. 10(화)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삼아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주관하셔서 이른아침부터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른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께 찬양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곤란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육과 같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받는 당연한 징계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억울함과 괴로운 심정을 아시며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모든 곤경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곤란한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욱 주님을 신앙하며 의지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요 새문안을 더욱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역사속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성전 건축도 오히려 더욱 견고하고 은혜롭게 이뤄져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더불어 새문안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성전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되게 하시오며 주변의 민원도 원만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대비하여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장리 추모관의 본격적인 사용을 위한 모든 마무리 공사가 잘 마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화를 하며 화해를 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가 더욱 발전하여 하루속히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지도자를 비롯하여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져서 남과 북이 분단된 채로 지낸 남과 북의 수십년의 간극이 메워지고 하나되어 온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역군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통일 자유대한민국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